

제5과 믿음의 결단

믿음의 명문가 그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믿음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은 바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결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담대히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애굽에서든지 이곳 가나안 땅에 속한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신앙고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둠의 세상 속에 살고있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지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살아 있기를 기대하며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 그리고 ()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몰고 갔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1-5)

1) (_____)

현대판 우상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재물’ 즉 ‘돈’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 신 ‘맘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돈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13)

→ 예수님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과 견주기에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그 위치가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이미 빼앗은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재물을 얻기위한 방편이 된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에 교회에 열심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맘몬’을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은 큰 미혹’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디모데전서 6:10)

→ 돈을 사랑함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즉 악은 ‘재물에 대한 탐심’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이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자유 할 수 있을까요? 이 만큼 재물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며, 강력한 우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맘몬’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돈을 주인이 아닌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가치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선언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6-13)

→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절대로 허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을 ‘허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맘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재물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이 될 뿐입니다. 돈을 이용할 뿐이며, 그 돈을 써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철저히 종으로 부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복음 10:21)

→ 주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해 물었던 부자 청년 관원.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됴됨이를 볼 때, 훌륭한 제자가 될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구한 것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부자 청년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은 곧 ‘돈의 노예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채우심을 믿기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38)

2) ()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강력한 우상은 바로 ‘몸’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온통 ‘몸짱’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남자도 예뻐지려고 ‘성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화장하는 남자가 익숙해진 것도 몸을 우상시 하는 현대의 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건강만을 추구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온 육체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7)

→ 영이 머무는 집으로써 ‘몸’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육과 영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면, 분명히 ‘영이 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영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육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63)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6-8)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우상이 되어 버린 육신. 우리는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_____)’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26-27)

두 번째는 ‘(_____)’입니다.

즉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16-18)

3) (_____)

마지막으로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돈도, 몸을 우상화하는 것도 다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사단은 이 ‘욕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5)

탐심은 모든 현대판 우상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디모데전서 6:10)

→ ‘맘몬’의 배후에도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14)

→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정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15)

그 방법은 오로지 ‘(_____)’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24)

그리고 ‘(_____)’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족함으로 어떤 상황에서 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